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1.(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에 소개해 드릴 특별한 일정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 몫으로 배정했던 코로나 백신 전량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파악된 게 있는지요?

<답변> 북한과 코백스 간 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제기구에 서 확인해 줄 사안입니다. 국제기구가 결정을 하고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백스 측에서도 북한이 백신접종을 하면 향후 배분계획을 통해 북한에 계속 백신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연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강도와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답변> 최근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권 사항 등 다양한 소재로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북한 선전매체의 일방적 주장이나 대남 비난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은 남북이 수차례 합의한 사항으로 존중은 준수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복구 정황과 관련해서 특정 궤도 위주로 복구 중인 정황이 북한의 핵 소형화 전략과 연관돼 있다는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 등 구체적인 군사 정보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위기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